



제 2022-53호  
[ 교 훈 ]  
자율·협동·창조

**가정통신**  
<http://www.eoyang.ms.kr/>

익산어양중학교  
☎ 834-4636

**편견은 걸림돌! 배려는 디딤돌!!**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4월 20일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배려의 마음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배려를 배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애 = 불가능” 이란 **편견**을 버려요 !!



템플 그랜딘

템플 그랜딘은 미국의 동물학자이자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교수입니다. 어린 시절 자폐증으로 진단되었는데, 당시 의사는 그녀가 평생 보호시설에 있어야 하며 말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그녀의 노력으로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림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동물의 이동 경로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가축 시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미국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템플 그랜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들과 다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애인 마크에도 배려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기존 장애인 마크

새 장애인 마크

기존: 장애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수동적 존재**로 생각하게 함  
변화: 장애인이 앞으로 **스스로** 나아가려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바뀜

학교나 마트 주차장 등 주변을 살펴 봅시다.

문고리에도 우리가 몰랐던 배려가 숨어 있어요!

**함께 찾아 볼까요?**

동그란 문고리 모양이 바뀐 것 역시 **손가락이 없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배려**였다는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배려를 찾아보세요.

2022년 4월 19일

**익산어양중학교장** (직인생략)